

정책참고자료

2016-9호

설기
강원도의회

일하는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체계 마련	4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9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실무 점검회의 개최	16
4	교육부	
	5월 가정의 달 연계, ‘생명존중 교육주간’ 운영	18
5	미래창조과학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SW개발 도전하라	28
	최양희 미래부 장관, 산·학·연 집적단지 연구안전 컨설팅 현장 방문·격려	32
6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열린 관광지’로 5개소 선정	34
	콘텐츠 기업 맞춤형 자금 공급 방안 마련	35
7	농림축산식품부	
	미래 영농인재 육성, 본격 시동	39
	- 창조농업선도교과 3개교 선정 -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동남아 시장 수출 확대 나서	44
8	환경부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 — 수질개선 통합·집중지원	48
9	고용노동부	
	‘16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의 첫걸음	53
10	여성가족부	
	“청년여성의 창업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56
11	국토교통부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부적 지원	62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제3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	73

1

국민안전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체계 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등 사전준비 만전 -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전국 하천,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을 121개 시군구에 1,348개소, 위험구역은 79개 시군구에 30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관리지역에 구명환과 같은 안전시설 배치와 기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 또한, 국민안전처는 해양수산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구급, 입욕통제 등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7월 하순에 급격히 증가하여 8월 초순까지 이어졌으며
- 대부분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83%)이 하천·계곡 등(75%)에서 토요일(44%)과 월요일(22%)에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8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하기, 구명조끼 입기,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기, 음주수영하지 않기, 자신의 수영실력 과신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붙임 1

201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 前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요원 확보 등 안전관리체계 사전구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사전대비기간 : '16. 4. 15. ~ 5. 31.

○ 안전관리대책 기간 : 6. 1.~8. 31.(특별대책기간 : 7.16.~8.15.)

※ 여름철 기상상황에 따라 관리기간 신축적 설정·운영

□ 세부 추진계획

-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4~5월)
 - 훼손 여부 확인하여 폐기·정비, 신규 구입 배치 등
-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4~5월)
 - 출입금지 등을 기재한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설치·정비
-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사전구축·운영(6~8월)
 - 휴일 안전사고 현황 등 상황관리(6.1~8.31)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교육 및 운영(5~8월)
 - 유급감시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재난안전네트워크, 민방위대 등
 - 배치 전 심폐소생술, 구조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 배치
- 대국민 홍보 강화(6~8월)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6·7월 안전점검의 날)
 - TV방송 광고용 CF 활용, 대국민 홍보 추진(TV, 대형전광판 등)
- 단체장 관심도 제고(6~8월)
 - '15년 인명피해 발생 시·군 대상, 장·차관 등 간부 공무원 점검
- 지자체 자율적 관리체계 유도(9~10월)
 -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지자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포상

□ 향후계획

-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실태 점검(5월)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운영(6.1~8.31)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10월)

붙임 2

2016년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현황

시도	관리지역		위험구역	
	시군구	지구수	시군구	지구수
합계	121	1,348	79	301
서울	3	3		
부산	4	6	3	4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	9	3	7
울산	1	5	1	1
세종	1	1	1	6
경기	11	105	5	7
강원	17	448	15	70
충북	10	90	9	34
충남	6	36	6	21
전북	10	111	8	52
전남	16	86	10	36
경북	20	251	9	36
경남	16	188	9	27
제주	2	9		

붙임 3

201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

□ 시·도별

구분	계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원	36	2	1	3	8	2	3	2	2	7	6

□ 원인별

계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기구전복	높은파도(급류)	기타
36	6	10	9	2	7	2

□ 장소별

계	하천·강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저수지	바닷가 (갯벌, 해변)	기타
36	21	4	6	1	-	4	-

□ 시기별

계	6월				7월				8월			
	소계	초순	중순	하순	소계	초순	중순	하순	소계	초순	중순	하순
36	4	1	3	-	10	2	3	5	22	14	4	4

□ 요일별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6	8	3	2	-	2	16	5

□ 시간대별

계	00:00-10:00	10:01-12:00	12:01-14:00	14:01-16:00	16:01-18:00	18:01-20:00	20:01-24:00	미상
36	2	7	5	13	4	5	-	

□ 연령별

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6	2	13	9	2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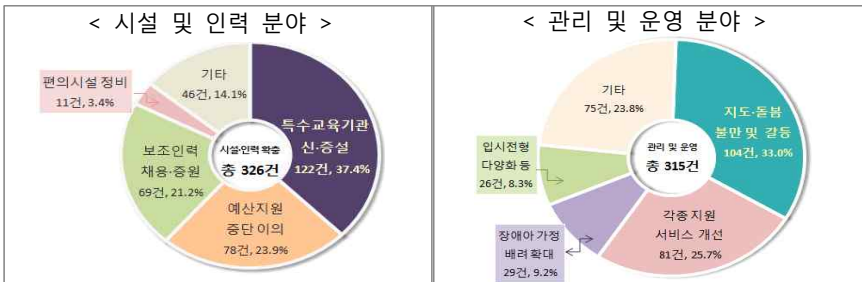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장애아동 교육 서비스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제36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아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641건(‘14년 1월~‘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 6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민원 유형) 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



- (세부 내용) ‘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수학교, 유치원·학교 내 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해달라는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발달재활서비스* 중단 이의’, ‘보조인력 증원’ 순으로

나타났다.

- *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은 지도·돌봄 불만 및 장애아와 비장애아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아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 등의 순이었다.

- (민원 발생 추이) 민원은 대체로 학기 초나 말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새학년이 되면서 장애아동 부모들이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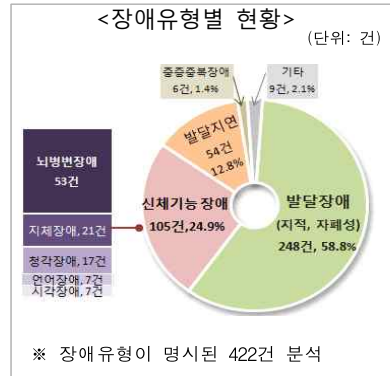
< 월별 민원 발생 건수 추이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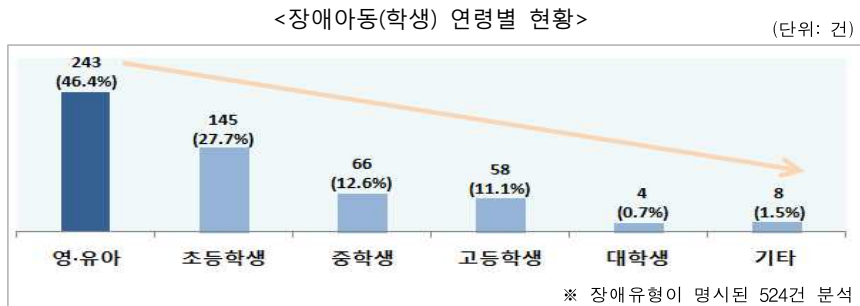


- **(장애유형)** 민원을 신청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기능 장애(24.9%), 발달지연(12.8%), 중증중복장애(1.4%) 등의 순이었다.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또래 평균보다 발달이 늦은 상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연령)** 장애아동(학생)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장애아동(학생)의 학년이 낮을수록 민원 건수가 많아, 영·유아가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27.7%), 중학생(12.6%), 고등학교(11.1%), 대학생(0.7%)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 신청인)** 민원 신청인은 장애아동의 부모인 30·40대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원 신청지역은 경기(31.2%), 서울(19.9%), 인천 (7.8%) 등 수도권이 약 59%를 차지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특수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장애아동과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민원 사례

1 시설 및 인력 분야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지역 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아동의 체계적 교육이 어려움]

- 인근 도시를 통틀어 지역 내 특수학교가 하나 뿐이라 장애아동이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움. 상급학교 진학 시마다 학교를 알아봐야하고, 통합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지역 내 특수학교의 설립을 요청함('14년 5월)

[병설유치원 내 특수반이 없어 장애아동이 취학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

- 지역 내 초등학교 2곳에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특수반이 없음. 이에 발달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마땅히 특수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 취학예를 하거나, 인근 병설유치원을 두고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15년 11월)

[○○시 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한 곳 뿐이라 자녀 돌봄이 어려움]

- 첫째 아들이 경증자폐라는 장애진단을 받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시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한 곳 뿐임. 해당 어린이집은 집과도 너무 멀고 차량운행도 되지 않아 아이를 직접 통학시켜야 하는데, 돌 지난 둘째아이 까지 돌봐야해서 너무 힘들('15년 10월)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내 전공과 정원 증원 요청]

- 지적장애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입학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역 내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만, 정원이 겨우 10명 뿐이라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음('15년 12월)

○ 예산지원 중단 이의

[발달재활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6살 자폐아를 둔 가정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딸 아이가 적절한 의사표시도 하며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음. 장애아 돌봄으로 맞벌이가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치료수업비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매우 큰데, 치료를 쉬면 아이상태가 나빠질까봐 너무 걱정됨('14년 7월)
- 자폐성장애 2급인 자녀가 3년 전부터 주2회 매달 8번의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구청 담당자의 말을 들었음. 계속하였던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갈 치료비를 생각하니, 앞이 깜깜함('15년 8월)

○ 보조인력 채용 및 증원

[보조교사를 배정받지 못해 자녀 학교 생활에 걱정이 큼]

- 뇌병변 장애1급인 딸이 초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데,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 이동이나 수업 도움을 받고 있었음. 그러나 올해 갑자기 보조교사를 배정받지 못해, 혼자서 책장 넘기는 것도 어려운 아이가 앞으로 학교생활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매우 큼('15년 2월)

[성별을 고려한 보조교사 배치 요청]

- 지적장애를 가진 딸 아이는 화장실 지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특수보조교사 배정이 힘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음. 보조교사 배정이 힘들면 특수교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특수교사는 남자 선생님이므로 성별이 다른 교사가 화장실 이동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 성별을 고려한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기 바람('15년 12월)

○ 편의시설 정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강당 이용 관련 개선 요청]

-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비롯한 도움반 학생 몇몇은 휠체어를 타고 학교생활을 함.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의 장소가 강당에서 이뤄지는데 강당이 2층에 위치해 있음. 문제는 강당 이동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선생님이 안고 이동해야하며, 이런 불편함으로 장애학생들은 부득이 행사 참석이 어려워질 때가 많으므로 학교 시설 정비가 시급함('14년 9월)

[특수학교 주변 도로에 안전시설 설치 요청]

-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앞에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합당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장애학생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오니, 해당 특수학교 주변 그루빙*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을 정비해 주기 바람('14년 6월)
- * 그루빙: 도로 및 활주로 포장 표면에 일정한 규격의 홈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도로주행 시 미끄럼 방지와 주행 안전성 향상에 효과를 발휘함

② 관리 및 운영 분야

○ 지도·돌봄 불만 및 비장애아와의 갈등

[지적장애아를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선생님 처벌 요청]

- 반에 지적장애아가 한 명 있는데, 짝을 바꿀 때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장애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는 등 통합교육과 배치된 비상식적인 학생 지도로, 장애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15년 2월)

[장애학생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면학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니 지도 개선 요청]

- 비장애학생 학부모로 자녀 반에 장애학생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책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수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 장애아 학습권만큼 비장애아 학습권도 중요하니 적절한 지도로 개선 바람('15년 3월)

[비장애아의 장애아 상습적 폭행 처벌 강화 요청]

- 자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반 학생 몇몇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주동자 아이만 반을 옮기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음. 괴롭히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 있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참담하니 재심해 주기 바람('14년 6월)

[사설 학원의 장애아 차별에 대한 처벌 요청]

- 지체1급 장애를 가진 자녀가 영어 학원에 등록했음. 그러나 수업 후 학원으로부터 수업 중 제스처를 따라하기 어려워 다른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비합리적인 사유로 학원을 그만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음('14년 3월)

○ 각종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

[발달재활서비스 성의없는 치료 및 무자격 치료사 등 지도·감독 강화 요청]

- 자녀가 지적장애아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 치료 과정을 우연히 보니 치료사가 휴대폰만 들여다 보고 있고, 아이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버럭 화를 내는 등 불성실하게 치료를 하고 있었음('14년 4월)
- 재활서비스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센터의 원장이 자격증도 없이 아이를 수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돈을 들여가며 아이를 치료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났음. 자격증 공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기 바람 ('14년 12월)

[장애아 활동보조서비스 연계 어려움 해소 요청]

-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로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커 경제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중이었음. 그러나 활동보조인마다 감당이 안된다며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두어 경제활동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움('14년 4월)

[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아동 프로그램 다양화 요청]

- 집 근처 새롭게 복지관이 신설됐는데, 일반 아동·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저히 적음.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미술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 바람('15년 8월)

[장애인아동 관련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이원화로 인한 정보 획득 불편]

- 장애인아동의 교육 관련 소관기관은 교육청이며 장애유아 보육비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장애인아동 관련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부족으로 일일이 부모가 찾아다니며 알아봐야 해서 너무 불편함('15년 11월)

○ 장애아 가정 배려 확대

[장애인아동 형제 어린이집 입소순위 상황 요청]

- 미취학 아동 셋을 키우는 다자녀가구 가정으로, 첫째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매일 여러 치료센터를 데리고 다니고 있음. 그래서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에 나머지 두 아이를 입소하려 해도 순위에 밀려 입소가 불가능함. 장애인아동 하나 돌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는데, 다른 두 아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바람('15년 1월)

[장애인아동 형제 같은학교 배치 요청]

- 발달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가 취학유예 후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음. 동시에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학교가 다른 곳으로 배정됨. 둘째가 첫째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누나를 정서적으로 돌봐주기 바라는 마음에 남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했지만 학구위반 사유로 불가통보를 받았음('15년 12월)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 가능 요청]

- 중증발달장애아를 둔 엄마로, 활동보조인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약간의 폭력성이 있어 보조인을 괴롭히는 마당에 보조인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음. 경제 활동과 동시에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장애인아동을 둔 가정에 한정하여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주기 바람('15년 9월)

[장애인등록 하지 않은 발달지체(연) 아동 발달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요청]

-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아 발달 관련 치료를 최소 주 25시간 이상 3년동안을 해야함. 그러나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미취학아동이라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조기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16년 1월)

○ 입시전형 및 진로의 다양화

[장애학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입시전형 확대 요청]

- 예고와 특목고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예술계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중학교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 대상 입학전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자녀가 미술에 소질을 보여 예술계 학교에서 재능을 계발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움('15년 4월)
- 약학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장애학생은 입시문이 너무 좁아 진학에 어려움이 큼('15년 5월)

[장애학생 평생교육원 과정 수료 후에도 취업문 좁아 걱정]

- 발달지체장애를 둔 부모로 자녀가 일하고 졸업 후 평생교육원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수료했지만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어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무 걱정됨('15년 12월)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실무 점검회의 개최 - 추진상황 점검 및 조기이행 독려 -

◇ 기획재정부는 2016.4.15.(금) 공공정책국장 주재로「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개최

◇ 관계 부처 소관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 등 청취, 조기이행 확산 독려

□ 기획재정부는 2016. 4.15(목) 공공정책국장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각 부처 (26개 부.처·청) 창조행정담당관 등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이행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은 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조기에 확산되어 30개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금년 12월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금까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3.31일)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상산업진흥원(3.2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4.15일)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하였고,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기이행을 확정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3.28), 장학재단(4.6), 무역보험공사(4.7), 국제방송교류재단(4.14)

4

교육부

5월 가정의 달 연계, '생명존중 교육주간' 운영

-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치료지원
- ▶ '꿈'과 '희망'을 나누고 '관심'과 '배려'가 충만한 학교문화 조성

-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생명존중 교육주간(4.18~4.29)」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한명이라도 새로운 학교환경과 교우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꿈'과 '희망'을 나누고 '관심'과 '배려'가 충만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생명사랑 UCC/ 웹툰/ 포스터 전시, 동영상 상영 등 그동안 교육부 등에서 개발·보급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교과시간 등에서 학생들의 생명존중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 관련자료 탑재: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http://www.ssmhi.com>)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16.4.1~4.29/ 초1·4, 중·고1학년 전수조사) 및 학교 내 상담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집중관리하게 된다.
 - * (1단계) 학교 내 검사 및 상담(16.4월) ▶ (2단계)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지속)
 - 아울러,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학생들의 성장통과 고민을 덜어주고 내적인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교육청과 단위학교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관심과 배려를 배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학교장 및 교사들도 학생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준식 부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의 관심을 당부하면서, “한 명의 아이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생명존중 교육주간 운영 계획
2. 생명존중 교육자료 목록
3.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요
4. 학부모 가정통신 뉴스레터
5. 생명존중 포스터

<붙임1>

‘관심’과 ‘배려’가 충만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주간』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 새로운 학교환경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삶을 포기하는 학생 증가 우려
-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집중적인 생명존중 교육,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전문기관 치료지원 등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관심’과 ‘배려’가 충만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추진 개요

- (행사명) 생명존중 교육주간
- (슬로건) ‘꿈’과 ‘희망’을 나누고 ‘관심’과 ‘배려’가 충만한 학교
- (운영기간) ‘16.4.18(월) ~ 4.29(금)
- (운영방법)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세부계획 수립·추진

□ 주요 내용

- (생명존중교육) 관련교과 및 창체시간에 교육부 등에서 보급한 UCC,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생명존중교육 집중 실시
- (문화행사)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맞게 포스터 등 교육자료 전시, 전문가 초청 강연, 캠페인, 경연대회, 문예행사, 체험활동 등 추진
- (집중관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16.4.1~4.30), 관심군 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한 학생발달 특성 이해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생명존중 교육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대상	자료 형태	주요내용	활용 방법	자료 개발	개발 연도
1	생명존중 교육 길라잡이(초·중·고 3종)	초·중·고	교사용 교수-학습자료	초: 나와 너의 생명, 생명과 관계, 생명과 사회 중: 생명존중 교육의 의미, 생명존중 교육의 실제 고: 나의 존재 느끼기, 타인의 존재 느끼기, 사람이 아닌 존재 느끼기, 생명의 아름다움,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함양	수업자료	교육부/경기도교육청	2015
2	생명 감수성 증진 교육	초·중·고	동영상	생명감수성(각 편당3~5') 1편 - 또 하나의 우주, 나, 2편 - 우리, 따뜻한 울타리 3편 - 물, 생명, 사랑 4편 - 길 위에서 만난 동물들 5편 - 생의 마지막 그 곁을 지켜주세요.	수업 및 계기교육	교육부/경기도교육청	2015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자료	중·고	동영상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수업자료 (학생 인터뷰를 통한 학생의견 반영, 5') - 포기 하지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30")	수업자료	교육부/대한국립시교육청	2015
4	자녀사랑 뉴스레터	학부모 학생교원	계기자료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 - 2015년 : 1호~8호 - 2016년 : 1호~2호	계기교육 및 수업	교육부/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5 2016
5	분노조절교육	초·중·고	동영상	학생정서함양교육 분노조절(4'40")	수업 및 계기교육	교육부/학생정서건강지원센터	2015
6	우리 함께 해피up. 힘내요, 우리가 있어요	초·중·고	동영상	캠페인 및 생명존중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래(댄스)	캠페인	교육부/대구광역시교육청	2015
7	교사를 위한 학교 정신건강 핸드북	교원	소책자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학생상담 및 지도	교육부/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5
8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공모전 우수작품	초·중·고	포스터 웹툰 UCC	2015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홍보, 캠페인, 수업자료로 활용	수업자료 및 홍보	교육부	2015
9	학교재난위기 및 자살사안 발생 시 위기관리	교원	동영상	학교재난위기 및 자살사안 대비를 위한 교직원 교육용(총4편, 편당 약 10'~15')	교직원 교육자료	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	2015

※ 자료 탑재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정신건강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요

검사대상	초 1·4학년, 중·고 1학년
검사절차	2단계 검사 (학교 1차, 전문기관 2차)
검사방법	온라인검사 / 서면검사
검사도구	학교급별 1종 사용 (초:CPSQ/중등: AMPQ-II)
사후관리	위험수준별(우선관리·일반관리)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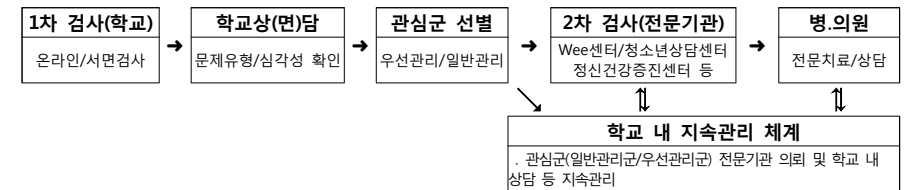
○ (검사기간) '16.4.1 ~ 4.30 (기간 내 교육청에서 설정한 학교 검사기간 중 실시)

* (3월)기본계획 수립 ▶ (3월)학교 내 협의체 구성, 교직원연수, 가정통신 등 추진기반 조성
▶ (4월)특성검사 및 학교 내 면담 ▶ (4월 ~) 전문기관 연계 및 학교 내 지속관리 등 사후관리

○ (검사대상) 초 1·4학년, 중·고 1학년

- 초등학생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중등학생: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 (검사절차)



○ (검사방법)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

○ (사후관리) 검사결과 위험수준별 관리체계 구축

관심군	▪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총괄(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보건상담담임 등) 운영 등 ▪ (학교내 지속관리) 학교상담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학기당 1회 이상) 등 ▪ (전문기관 연계) Wee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연계, 2차 검사 등 조치
우선 관리	▪ (학교내 집중관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전문기관, 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 (병원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자살위기 학생 등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 병원원 의뢰체계 구축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중고등)

자녀사랑하기 1호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신학기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어려워진 수업 내용, 규칙적인 생활 등 새로운 변화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2016년에도 “자녀 사랑하기” 뉴스레터를 매월 가정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2016년 첫 번째 뉴스레터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체적인 건강을 챙겨주세요.

새로운 환경은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한 반응과 긴장을 불러옵니다. 그 결과 불면, 과다수면, 식욕저하, 소화불량, 변비, 면역력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충분히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절한 운동이나 놀이 활동 등을 통해서 학교생활의 긴장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영양섭취, 유산균이 풍부한 간식 등을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학교생활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자녀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새로운 선생님과 관계는 어떤지 등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와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의 생각을 먼저 말하기 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생각과 판단이 부모님과 다르더라도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담임선생님과 잘 소통해 주세요.

자녀의 특성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대화를 해 주세요.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담임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가정에서의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살펴봐주세요.

① 자녀의 친구관계 파악하기

자녀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학원이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어울려 노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귀는 것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게 큰 반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학교 폭력이 의심될 때

신학기에는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일 수 있기에 힘겨루기나 예기치 않은 폭력, 따돌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상처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 싫어하는 일, 물건이 없어지는 일 등이 잦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③ 친구관계 어려움 해결하기

자녀가 힘들어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해주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실수가 있거나 상대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여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과정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 주세요.

① 위로와 공감의 말이 힘이 됩니다.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구나."

"네가 힘들어 하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구나."

② 안심시키고 도움을 약속하는 말이 힘이 됩니다.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안심해도 돼."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③ 진심어린 격려의 말이 힘이 됩니다.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어렵지만 잘 이겨낼 거야."

"시간이 필요해.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학교가기를 거부하거나 신체적인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거나 지나치게 무기력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증이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심리치료와 부모님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사랑하기 2호 - 친구관계

청소년이 되면 자녀들에게는 친구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심이 생겨나면서 친구와의 유대감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청소년기에 친구와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에 친구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2016년 두 번째 뉴스레터에서는 자녀가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맺고 괴롭힘(왕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고 인정해주세요.

청소년기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며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운동, 놀이 등의 활동은 자녀에게 의미가 큼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2.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친구를 사귀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먼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주세요. 친구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주는 습관은 이후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에게 분명하고 솔직한 사과를 통해 오해를 풀도록 알려주세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을 했는데 내가 많이 좀 심했던 것 같아.
혹시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3.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시오, 자녀의 사생활을 인정해 주세요.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가 누구와 친한지,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지 평소에 무엇을 함께하고 즐기는지 물어봐 주세요. 하지만 청소년인 자녀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하면 다그치고 화를 내기보다 그저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해 주세요. 부모님이 보기에 아이의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부모님의 불만이나 평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자녀의 입장을 인정해 주세요.

4.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해 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체 활동 중에는 서로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잘했는데 나 때문에 이번 발표가 잘 안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네가 감기로 몸도 아팠는데 끝까지 같이해줘서
우리 조도 발표를 무사히 마친 것이지. 정말 고마워”

5. 자녀가 따돌림(왕따)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또래사이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자녀가 먼저 표현하면 잘 들어주세요.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세요. 만약 자녀가 아래의 모습을 보인다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하는지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고 학교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학교폭력 의심 증상

- 옷이나, 운동화 등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몸에서 다친 상처나 멍자국을 자주 발견한다.
-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 등에 '죽어라', '죽고 싶다'와 같은 표현이 쓰여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 풀이 죽고 의욕이 적어 보인다.
- 두통,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 자기방에 틀어박혀 친구에게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6. 내 자녀도 다른 친구를 배려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도 다른 친구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리고 욕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무시하거나 놀리는 말 등은 모두 폭력과 같은 행동임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료이며, 총 11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생명존중’ 포스터



5-1 미래창조과학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SW개발 도전하라!

- 2016년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R&D' 지원사업 공모 개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2016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공모를 '16년 4월 14일(목)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창의도전형 SW R&D 사업은 총 3개의 트랙(자유공모/창조경제타운연계/경연수상팀)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팀으로 선발될 경우, SW개발비와 기술교육·멘토링, 창업교육·멘토링, 투자IR 및 국내외 VC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 * 과제외의 국내·외 기술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 (트랙1) 개인 및 팀(2인 이상)을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술실현 및 사업화 지원
 - ※ 사업 공고 : '16.4.14.(목) ~ '16.5.13.(금)
 - ※ 신청 방법 : 미래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전산접수(www.swrnd.or.kr)
 - ※ 지원 금액 : 6개월 이내로 개인(최대 5천만원), 팀(최대 1억원) 지원
- (트랙2)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추천한 아이디어 중 사업화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R&D 지원
 - ※ 선정 방법 : 창조경제타운 내 ICT·SW 분야 CTO 추천 아이디어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www.creativekorea.or.kr, 5월 중)
 - ※ 지원 금액 : 6개월 이내로 개인·팀(최대 5천만원) 지원
- (트랙3) **미래부 주최의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既 선정 및 지원하였었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R&D 지원
 - ※ 선정 방법 : 기관추천서 접수, 발표평가, 사업비 조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 ※ 지원 금액 : 6개월 이내로 개인·팀·법인사업자(최대 2억원) 지원

□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R&D 지원 사업으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연구개발 및 전문가의 도움 등이 필요한 개인이나 팀 등이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4년 간, 총 100건의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특허 출원 62개(해외 포함), 창업·사업화 40건, 50억 이상의 투자유치, 과제 수행자 대부분이 SW 연구개발 전문가로 성장하여 글로벌 취업(퀄컴, 알마로코 등)에 성공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사례) 이미지 인식 기술 ‘딥 러닝’ 개발(2014 전세계 이미지인식 대회에서 구글 제치고 5위 수상), 온 가족을 위한 보급형 심폐소생술 트레이너 큐브 개발 등

□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SW기반의 창조경제 사례 및 창업문화가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강화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개발의 완성도 및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6년「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개요
 붙임 2.「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대표성과

붙임 1 2016년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및 창업단계 기업의 기술구현, 사업화 과정 지원을 통해 SW기반의 창조경제 사례 창출 및 창업문화 확산

- (지원대상) SW개발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및 창업단계기업
- (지원내용) SW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등)

○ (지원규모) 3개 트랙으로 구분하여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 과제 지원 개요 >

지원규모	연구기간	지원대상	지원조건
과제당 0.5~2억원	6개월 이내	개인 및 창업단계기업	출연금

□ 추진내용

○ 지원 방법 : 3개 트랙으로 지원

구분	지원분야	모집대상	지원금액 (최대지원)	기술료
트랙1	개인, 팀(2인 이상)	자유공모	5천만원~1억원	창업시(○)
트랙2	개인, 팀(2인 이상)	창조경제타운 연계	5천만원	창업시(○)
트랙3	개인, 팀(2인 이상) 개인·법인사업자	공모전을 통해 旣 선정된 아이디어/과제	2억원 이내	사업자(○) 창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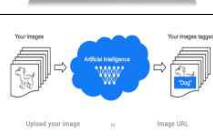
○ 지원 대상을 구별하여 트랙별로 운영하고 맞춤형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통해 사업성과 가속화

< 지원 플랫폼(안) >

아이디어 개발	사업 구체화	SW R&D 실현지원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	협업개발	전문가관리	
창의적 제안 발굴	사업화 멘토지원	연구비 지원, 기술 교육, 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진단 집중지원

지원 강화	창업 준비 진단	개인, 팀	각 단계별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 지원강화					
		개인·법인 사업자	① 조직 구성	② 제품 개발	③ 사업 보호	④ 마케팅	⑤ 자금 조달	⑥ 출구 전략

붙임 2 「창의도전형 SW R&D 지원」 사업 대표성과

구분	내 용	
2015년	☐ 온 가족을 위한 보급형 심폐소생술 트레이너 큐브 개발 ○ (과제내용) 온 가족을 위한 보급형 심폐소생술(CPR) 트레이너 IoT(사물인터넷) 제품인 cprTOY(제품명)를 개발 ○ (대표성과) 미래부,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품 상용화	
	☐ 개인유전자 기반 맞춤형 건강 솔루션 알고리즘 개발 ○ (과제내용) 타액(침)을 통해 개인의 유전자형별 적합한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솔루션 제공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바일 앱으로 관리 ○ (대표성과) 제품 상용화, 투자유치	
2014년	☐ 음성인식을 통한 동영상의 자막 이미지화 서비스 개발 ○ (과제내용) 동영상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서비스 개발 ○ (대표성과) 뉴스타파 공식 앱에 솔루션 제공 및 TED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운영, 창업	
	☐ 자성체 그리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다트 개발 ○ (과제내용) 체감형 디스플레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완료, 이를 응용한 스크린 다트를 개발, 상업적 가치 증명 ○ (대표성과) '15년 1월 실리콘밸리 Draper Execution Program 大賞 수상, 투자유치	
2013년	☐ 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캐치넷글서비스 개발 ○ (과제내용)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상품의 가치, 정보를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서비스 ○ (대표성과) 선거캠프, 대기업, 대형병원 등에 온라인 미디어 분석서비스 제공, 창업 및 투자유치	
	☐ 세상에서 가장 편한 웹에디터 IUEditor 개발 ○ (과제내용) 사용자가 웹 에디터를 통하여 빠르고 강력하게 템플릿 제작 ○ (대표성과) 창업 및 투자유치	
2012년	☐ 온가족이 함께 만들고, 공유(SNS)하는 그림일기 ○ (과제내용) 건강한 가족 이야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림일기 앱 뿐만 아니라 바핑(휴점도, 콘텐츠) 제품 상용화 성공 ○ (대표성과) 창업 및 제품 상용화	
	☐ 이미지 인식 기술 '딥 러닝' ○ (과제내용) 컴퓨터가 이미지에서 원하는 형태의 물체가 등장했을 때 이를 감지해 내는 기술 ○ (대표성과) 2014 전세계 이미지인식 대회에서 구글 제치고 5위 수상, 창업 및 투자유치	

5-2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산·학·연 집적단지 연구안전 컨설팅 현장 방문·격려 - 공공규제 개방 등 연구안전 신(新)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 1.~4.30.)인 4월 15일(금) 오전 10시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방문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ASV)'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경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기간/대상 : 4. 4.(월)~4. 8.(금) / 경기TP 입주 28개 기업부설(연) 등 30개 기관
 - 컨설팅 내용 : 관련 법·제도 교육 및 이행지원, 취약요인 발굴 및 기술자문 등

- 본 행사에는 이재성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 제종길 안산시장, 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강원우 환경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 등 유관 기관장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 이번 현장방문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사고발생 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지 주변 산·학·연 집적단지 내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사회 확보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미래부는 2016년도 중점과제로 **연구실 안전관리분야**가 지정되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 간 **전국 1,200개 기관, 55,00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미래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전체 연구실, 연 1회 이상) 및 정밀안전진단(유해 또는 위험작업 연구실, 2년 1회 이상) 실시 현황을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확인·검사**하고 있으나,
* ('14년) 220개 → ('15년) 300개 → ('16년) 400개

○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전체 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고, 연구실 단위로 실시하여 연구실이 위치한 건물, 기관 또는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미래부는 민간 전문기업(연구안전진단분야)*들을 활용, 전국 39개 국가산업단지 등 도심지 주변 산·학·연 집적단지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민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안산사이언스 밸리(ASV)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연구안전 관리위탁 및 점검·진단 대행, ㈜누리FES 등 19개 업체 등록(현재 기준)

- 현장방문에서 최양희 장관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국가 또는 지역의 고부가가치형 산업을 창출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우리의 인재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 “향후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연구안전 신(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 규제 개방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6-1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열린 관광지’로 5개소 선정

- 당항포, 선운산, 오동도, 정동진, 대천해수욕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전’에서 ‘2016 열린 관광지’로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여수시 오동도,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등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문체부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관광사업체(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광일반 및 무장애 관광, 건축시설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소를 엄선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지 시설 개·보수 및 관광안내 체계 정비 사업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추천 관광코스과 어르신(시니어)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봄 여행주간에는 장애인 200여 명에게 지난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경주 보문관광단지과 대구중구 근대골목 중심의 나뉘여행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선정된 관광지 내에 무장애 관광코스를 지정하고 접근로와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열린 관광지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국내관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기업 맞춤형 자금 공급 방안 마련

- 콘텐츠진흥원·기술보증기금·아이비케이기업은행 간 협력 약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콘텐츠 가치평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26일(금) 문체부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와 체결한 ‘콘텐츠산업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으로서, 가치평가 주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과 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가치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적극 참여, ▲가치평가 결과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융자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문화콘텐츠 정보마당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우대 대출 제공, ▲가치평가 펀드 조성에의 참여 등이다.

콘텐츠 가치평가는 콘텐츠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올해 하반기에 게임·영화 분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가치평가 펀드(200억 원)’도 조성한다. 따라서 가치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에 맞추어 펀드를 통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콘텐츠 가치평가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금융권에서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활용하게 될 금융권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세 기관의 업무협약이 끝나면 유명스타와 캐릭터를 소재로 하는 아이피(IP) 기반 모바일·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주)푸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협약식이 진행된다. 앞으로 가치평가 제도가 안착되면, 가치평가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은 금융위가 주최하는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체결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업무협약 외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핀테크(fintech)와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에 대한 설명과 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핀테크는 모바일과 온라인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다. 핀테크의 한 방식인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큰 기회비용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커서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행사 서두에서 “금융과 기술, 문화의 만남은 단순한 합을 넘어 그 이상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문화산업이 날개를 달고 좋은 아이디어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8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계획

‘제8차 핀테크 Demo-Day’ 계획

1 행사 개요

- 일시/ 장소 : '16. 4. 19.(화) 14:00~16:00/ KT 드림홀(광화문)
- 참석 대상 : 약 170여 명
 -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금감원, 금융권(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제작사, 창투사, 핀테크지원센터*, 기보, 코스콤, 콘진원, 영진위, 협단체 등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20')	14:00~14:03	홍보동영상 상영	
	14:03~14:06	개회사	핀테크지원센터장
	14:06~14:20	축사	금융위원장, 우리부, 호주대사
세션1 (20')	14:20~14:40	MOU 체결	
		①핀테크센터-호주Stone&Chalk ②콘진원-IBK-기보 : 투융자지원	센터장-대표 서명(및 촬영) 기관장 서명(및 촬영)
휴식	14:40~14:50		
세션2 (60')	14:50~15:50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소개, 설명)	와디즈/메이크스타 카카오뱅크/케이뱅크 IBK기업은행
Q&A	15:50~16:00	질의 응답	

2 상세 행사 내용

□ 기관간 MOU 체결 (세션1)

① 한-호주 핀테크 지원기관간 MOU 체결

○ (체결기관) 핀테크지원센터 - Stone&Chalk*

* '15.8월 설립된 호주의 대표적인 핀테크 Accelerator(주정부지원)로서, 현재 총59개 핀테크 기업(해외사2개 포함), 106명이 입주하여 인큐베이팅 중

○ (내용) 양국간 핀테크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 ①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상대국 방문시 사무공간, 미팅기회 등 제공), ②핀테크 아시아 프로그램(아시아 주요국간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문화콘텐츠 분야 금융지원 MOU 체결

○ (체결기관) 콘진원 - IBK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내용) 가치평가 활성화 지원 MOU + 푸토 투융자 지원 MOU

· (가치평가 활성화) * 가치평가시 기보,기은 참여, * 가치평가 우수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 클라우드펀딩 투자 기업에 우대조건 대출, * 가치평가펀드 조성 협조

· (투융자 협약) (주)푸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SJ파트너스)/보증(기보)/융자(기은)

☞ 푸토엔터테인먼트 : 대표 홍계운, 인기스타·캐릭터 등 IP기반 온라인·모바일 게임사, 'EXO-RUN', '마이러바' 등 출시(가치평가 모형 시범 적용 중)

□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세션2)

○ (클라우드 펀딩) 와디즈, 메이크스타 등 문화예술 분야 펀딩 사례 소개

* (와디즈) 투자형 클라우드펀딩 업체, 문화예술/제품/공익/개인모금 등 분야 펀딩 (메이크스타) 방송 연계 분야 특화 후원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업체, 자금모집 중개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의 핀테크 방안 발표

* 예) 예금이자를 포인트로 적립, 음원·게임 등 문화 콘텐츠 구매로 연계

○ (문화산업 금융지원 소개) 기은(클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 기업투자정보 마당), 콘진원(가치평가) 등 소개

* 문화콘텐츠 분야 클라우드펀딩시, 마중물로 일정 금액 지원(총 100억 규모)

미래 영농인재 육성, 본격 시동!!

- 창조농업선도고교 3개교 선정-

《 주 요 내 용 》

- ◆ 금년부터 첨단 과학 영농기술을 보유한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양성을 위한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 추진(17.3개교)
- ◆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 참여학교 3개교 선정
 - (선정학교)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호남원예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창조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을 운영할 농업계 고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총 7개 농업계 고등학교가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3.25~26) → 2차 현장심사(4.1~6) → 3차 최종심의위원회(4.15)와 같이 3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해 3개 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 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보은자영고등학교, 호남원예고등학교

- 금번 평가에서는 인력양성 목표, 학과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생선발 방법,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교원의 참여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은 원예와 축산 2개 분야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하고 전문교과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졸업 후 영농창업이 가능한 후계영농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전체 이수단위(204단위)의 70%를 전문교과 내용으로 구성(실습학년제* 포함)하고,

* 실습학년제란? : 주 단위로 3일은 현장(농가) 인턴십 + 2일은 교내 교육으로 운영하는 도제식 교육과정임

- 전문교과 중 실험·실습 비중을 7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실습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 또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을 활용한 해외기관 연수, 영농창업 전문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전공분야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학생선발을 성적보다 뚜렷한 영농의지 및 승계기반 등을 중심으로 전국단위로 모집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 산학겸임교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실습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것이다.

□ 선정된 3개 학교는 금년도에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숙사 증개축, 실습시설 및 기자재 보강, 교과목 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구성·운영, 학과개편,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 금년에는 3개교에 개교지원금으로 20억원씩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기숙사 및 실습시설 개보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체계적인 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업분야에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기술·경영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1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규모 : 전국 농업계 고교 3개교 * 마이스터고 제외
- 지원 분야/단위 : 원예, 축산, 원예·축산/학교단위
- 예산 : ('16 정부안) 개교지원금 20억원, ('17 이후) 운영비 매년 지원
* '17년 이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안

- 학생선발 : 전국단위로 학생 영농의지 중심 선발, 학급당 20명 내외
- 교육과정
 - 전체 이수단위(204단위) 중 전문교과 비중 70%(143단위) 이상
* 보통교과 일부, 자율과정, 창의적체험활동 과목도 실질적으로 전문교과 관련 내용으로 운영
** 특성화고 교과편성 단위 : 보통교과 65, 전문교과 86, 자율과정 29, 창의적체험활동 24
 - 전문교과 중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는 50%(72단위) 이상
 - 국내 현장기반 프로그램(현장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방과 후 지원프로그램(학교적응, 창업지원,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학생혜택 : 등록금 면제, 전원 기숙사 생활, 학교 프로그램 자부담 면제(현장실습, 해외 연수 등)

□ 졸업생 진로 : 창업 100% 목표(승계 포함)

* 창업 준비를 위한 취업은 농업계열 회사에 취업토록 지도

□ 선정/관리 방안 : 전국 대상 공모/매년 연차평가

□ 향후 추진계획

- 선정결과 공고(4.19) → 선정학교 사업계획 컨설팅(~'16.7월) → 세부 계획 수정 및 승인('16.8월) → 교육운영 컨설팅('16.8~12월) → 교육 운영('17.3월~)

참고 2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추진 역량이 있는 학교 선정

□ 평가대상 : 공모에 신청한 7개 학교

- * 여주자영농고, 보은자영고, 경남자영고, 한국생명과학고, 홍천농고, 호남원예고, 김천생명과학고

□ 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2단계)현장평가→(3단계)최종심의위원회

구분	주요내용
① 서류평가	○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증빙자료 포함)를 검토하여 평가지표별로 서류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시 보완·확인사항 논의 및 정리
② 현장평가	○ 서류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 확인, 사업계획 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학교 시찰 등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③ 최종심의위원회	○ 서류·현장평가 자료 검토 및 최종 확정

□ 평가주체 : 평가위원 7명(교육전문가 5명, 농업현장전문가 2명)

□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

- (평가지표) 학교 교육목표 및 학과/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계획(25점), 교직원 확보 실적 및 계획(20점), 학생선발과 진로지도 실적 및 계획(20점), 시설/설비 활용 실적 및 계획(15점), 교육청의 육성 의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12점), 예산편성·운영 및 성과관리(8점)
- (선정기준) 평가영역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학교 선정

7-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동남아 시장 수출 확대 나서 - 2016 Singapore 'Food & Hotel Asia' 박람회 참가 -

《주요내용》

◇ 행사명 : 2016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참가

* 격년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 바이어 전문 식품 & 호텔용품 박람회

- 기간 : 2016. 4. 12(화) ~ 4. 15(금)
- 장소 : 싱가포르 엑스포(Singapore Expo)
- 참가규모 : 33개 업체 36부스
- 전시품목 : 김치, 버섯, 인삼, 차류, 주류, 장류, 건강식품 등 농식품 전반
- 주요성과 : 경기, 충북, 경북, 광주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였으며 총 422건 18백만불의 상담 실적 거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 농식품의 동남아 지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EXPO에서 개최된 '2016 싱가포르 식품박람회(Singapore Food & Hotel 2016)'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주관으로 33개 농식품 수출 업체가 참가 했다고 밝혔다.
- 올해로 13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의 식품, 호텔용품 종합 전시회로 금년도는 71개국 3,198개 업체가 참가하고 88개국 4만7천여명의 바이어 및 참관객이 내방하는 등 한국식품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무대로 평가 되었다.
- 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면류, 스낵류, 차음료, 장소스류, 신선·건강식품 등 수출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경기, 충북, 경북, 광주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총 422건 18백만불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 박람회 기간 중 건강미용간편성 등을 중시하는 현지 소비 트렌드와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류와 소스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알밤막걸리, 버섯 등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지 매장에 신규 입점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對 싱가포르 수출실적 : ('14) 120백만불 → ('15) 129(7.3% 증가)

- 특히, 한국관에는 **한국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한식요리 외에 현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 미니버거 등의 시연 및 시식 행사를 개최하고,
- 참관객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고 시식해 보는 행사를 매일 개최하여 우리 전통음식인 김치가 세계시장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서 높은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우수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구매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에 현지 수입·유통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이 앞으로도 현지 유통업체에 많이 입점 및 현지화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016 싱가포르식품박람회(FHA2016) 참가 개요

1 박람회 개요

- 행사명 : Food and Hotel Asia 2016(13회)
- 기간/장소 : 2016.4.12(화) ~ 15(금), Singapore Expo
- 규모 : 97,000sqm
- 주최 :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 전시품목 : 신선농산물, 건강식품, 가공식품 전반, 제과제빵 기계, 호텔용품 등
- 성격 :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식품&호텔용품 전시회
- '16 행사 참가 규모 : 71개국 3,198업체 참가 / 참관객 : 47,630명

2 한국관 개요

- 참가규모 : 324㎡, 36부스
- 참가업체 : 33업체
- 전시품목 : 신선, 인삼, 차류, 스낵, 장류, 수산물 등 식품 전반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주요 행사 내용

-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 음식 시연 시식행사 개최로 요리방법 홍보 및 관련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특별 식문화 홍보관 운영
- 박람회 참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치를 만들고 먹어 보는 “김치 클래스” 운영
- 경기, 충북, 경북, 광주 등 지자체와 함께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한 국가 통합브랜드 홍보로 시너지 제고
- 바이어 관람 및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한「aT 컬렉션 Zone」운영으로 수출상담 유도 및 박람회 참가 효과 제고

참고 2 2016 싱가포르식품박람회 참가업체 현황 및 행사사진

□ 참가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참가부류	소재지
1	틀립인터내셔널	음료	서울시
2	(주)삼진글로벌넷	김치	서울시
3	에이치엔피인터내셔널	신선	서울시
4	녹차원	차류	서울시
5	(주)봉추푸드시스템	기타	서울시
6	아이케이지코리아	기타	서울시
7	(주)지이스트	장류, 소스류	서울시
8	세미기업	음료	서울시
9	(주)삼양패키징	음료	서울시
10	오케이에프	음료	서울시
11	NH무역	신선	서울시
12	(주)청계원	신선	경기도
13	청학에프앤씨	기타	경기도
14	고려인삼연구(주)	인삼	경기도
15	(주)맘메이크	음료	경기도
16	호산물산(주)	면류	경기도
17	새남에프앤비(주)	음료	경기도
18	(주)나래 푸드텍	기타	경기도
19	(주)리빙라이프	기타	경기도
20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신선	경기도
21	더존무역(주)	건강	대전광역시
22	에프엔바이오	건강	충청남도
23	공식품(영)	기타	충청북도
24	천호식품(주)	건강	경상남도
25	(주)하늘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스낵류	경상남도
26	농업회사법인(주)이비체	건강	경상북도
27	(주)모아	김치	경상북도
28	코리아팜영농조합법인	신선	경상북도
29	수지누리식품	음료	경상북도
30	(주)한국에플리즈	주류	경상북도
31	아이밀	유아용스낵	광주광역시
32	한국제다	차류	광주광역시
33	영어조합법인일출봉	수산물	제주특별자치도

8 환경부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수질개선 통합·집중 지원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논산 논산천 등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 22개 사업을 3~5년간 1,710억 원 집중투자

◇ 수질개선사업을 통합·집중하여 단기간 수질개선 효과 높여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낙동강 수계 함안 함안천, 금강수계 논산 논산천, 영산강수계 광주 장수천과 무안 사교천, 섬진강수계 남원 주촌천, 만경강수계 전주 아중천 등 전국의 오염하천 6곳을 선정했다.

○ 6곳 하천에는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2개 사업이 3~5년간 집중·투자되어 단기간에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 이들 하천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 내외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7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장수천, 아중천 같은 도시지역 하천은 해당 지자체가 하수관거 정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논산천 같은 농촌지역 하천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량 등을 지원한다.

□ 6곳은 지자체에서 제출된 신청서와 유역(지방)청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질 오염 정도, 인구밀집지역, 지역주민 개선 요구, 지자체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1차 선정회의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이들 하천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6mg/L으로 현재 수질이 좋지 않다.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하천이 생활환경 수질 기준인 II등급(좋은 물, BOD 3mg/L이하)으로 개선된다면, 부유물질 등 미관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악취 민원 등이 해소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단기간(3년~5년)에 집중 지원하는 묶음형(패키지) 수질개선 사업이다.

○ 이 사업은 그간 환경부의 수질개선 단위사업들이 분산·추진됨에 따라 개선효과를 얻는 데 장기간 소요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왔다.

○ 현재 40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17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에서 시행 전보다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강천은 사업전 생활환경 수질 기준 IV등급(BOD 7.8mg/L)에서 II등급(2.2mg/L)로, 계성천은 III등급(BOD 3.8mg/L)에서 II등급(2.0mg/L)로 각각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지류의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 붙임 1. 2016년 통합·집중형 사업 선정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2016년 통합·집중형 사업 선정결과

○ 함안군 함안천 등 6개 하천 1,710억원 투자

(사업예산은 지자체 신청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개별사업 심의 시 사업규모,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억원, '17년 이후 국고 기준)

구분	하천명	유역 여건	주요 문제점	개선사업	기간
	6개 하천			<총 1,710억원> 계속1개, 153억원 신규21개, 1,557억원	
낙동강	함안천 (함안군)	○ 하천연장: 9.6km ○ 유역면적: 155.53km ² ○ 중권역 : 남강 ○ BOD: 3.2ppm ○ 군청소재지로서 인구 밀집지역	○ 미처리 하수 유입 ○ 비점오염(농경지)	<5개소 439억원> ○ 생태하천(75억) ○ 하수처리(136억) ○ 하수처리(18억) ○ 하수관거(103억) ○ 하수관거(107억)	'17~'19 '17~'19 '17~'18 '17~'19 '18~'20
금강	논산천 (논산시)	○ 하천연장: 28.08km ○ 유역면적: 70.9km ² ○ BOD: 3.6ppm ○ 중권역:논산천 ○ 주거밀집지역	○ 미처리 하수 유입 ○ 악취개선 민원	<9개소 614억원> ○ 하수처리(140억) ○ 하수처리(18억) ○ 하수처리(18억) ○ 하수처리(64억) ○ 하수처리(92억) ○ 하수관거(116억) ○ 하수관거(128억) ○ 생태하천(15억) ○ 가축분뇨(23억)	'17~'19 '17~'19 '17~'20 '17~'19 '17~'19 '17~'20 '17~'20 '18~'20 '17~'18
영산강	사교천 (무안군)	○ 하천연장: 5.8km ○ 유역면적: 7.7km ² ○ BOD: 6.0ppm ○ 중권역:영산강하류	○ 미처리 하수 유입 ○ 생활오수 유입	<2개소 130억원> ○ 생태하천(45억) ○ 하수관거(85억)	'18~'20 '17~'19

구분	하천명	유역 여건	주요 문제점	개선사업	기간
	장수천 (광주시)	- 하천연장: 3.86km - 유역면적: 6.94km² BOD: 6.6ppm - 중권역:영산강상류 - 아파트 인접, 수생태계 건강성 불량	- 생활하수 유입 - 생활오수 유입	<2개소 14억원> - 생태하천(9억) - 하수관거(5억)	'18~'19 '17~'18
새만금	주촌천 (남원시)	- 하천연장: 8.45km - 유역면적: 23.67km² BOD: 3.2ppm - 중권역:요천 - 관광지연접, 인구밀집지역인접	- 생활하수 유입 - 비점오염(농경지, 산단, 축사 등)	<2개소 228억원> - 생태하천(75억) 하수관거(153억)	'17~'19 '16~'19
	아중천 (전주시)	- 하천연장: 8.01km - 유역면적: 24.38km² BOD: 3.7ppm - 중권역:만경강 - 상가와 개별주택, 아파트단지 밀접	- 악취발생 - 유지용수 부족 - 생활하수 유입 - 비점오염(농경지)	<2개소 285억원> - 생태하천(150억) - 하수관거(135억)	'17~'21 '17~'21

붙임 2

질의응답

1.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의 목적은?

-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지류를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의 선정 기준과 지원기간은?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의 선정 기준은 수질현황, 인구밀집지역내 위치, 지역주민 개선요구, 지자체 개선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통합·집중형 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1~4차년도 지원 하천 현황은?

- 1~4차년도 총 40개 하천 171개 사업을 추진 증으로 1차 10개 하천, 2차 11개 하천, 3차 10개 하천, 4차 9개 하천을 선정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임 3

전문 용어 설명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으로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
- 좋은 물 : BOD 3mg/L 이하, T-P 0.1mg/L이하인 물

'16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의 첫걸음 유연근무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

- '16년 첫 승인심사위원회 개최, 8개 사업장 승인
- 중소기업 벤치마킹 사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일가양득 교육 등 지원

□ 총 8개의 사업장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이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첫 문을 열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제1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산할 중소기업 8개소**를 승인하였다.

* (제1차 심사위원회) 4월 8일(금) 개최, 신청사업장 15개소 중 8개소 승인

** ①엘앤씨바이오, ②느티나무도서관재단, ③한국비투아컨설팅, ④트리니티소프트, ⑤떡파는사람들, ⑥와이엠씨, ⑦지디청주공장, ⑧지디오창공장

■ 한국비투아컨설팅(주) ◦ 업종: 컴퓨터시스템개발, 근로자수: 18명

【재택근무를 통해 숙련된 우수인력의 이직을 예방할 수 있어 좋습니다.】

- ▶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이직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아이를 위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기업 차원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고민을 재택근무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내에 인터넷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업무 지시·관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숙련 근로자의 이직을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지니 기업 입장에서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 느티나무도서관재단

◦ 업종: 도서관, 근로자수: 41명

【탄력근무제로 근로자의 업무 집중력 향상을 기대합니다.】

- ▶ 우리 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12시간을 운영하다보니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1시 출근으로 나누어 각각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1명 중에 40명이 여성 근로자이다보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 반면, 필요한 때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어린이집 하원시간이되면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오전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근로자가 오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도서관을 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엘앤씨바이오

◦ 업종: 피부조직 이식재 등 의료용품 제조, 근로자수: 42명

【시차출퇴근제로 직원의 자기개발 시간을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 ▶ 우리회사는 많은 분들께 생소할 수도 있는 피부조직 이식재, 인공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회사의 근무제도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명의 직원중 10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육아를 위해 잠시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이고 싶지 않지만, 결혼, 출산, 육아,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어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위해 오전시간을 쓰고 싶은 직원도 있더라고요. 시차출퇴근제를 통한 직원의 능력 향상은 결국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테니 회사에서도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 트리니티소프트

◦ 업종: 웹방화벽, 정보보호컨설팅 등 IT서비스업, 근로자수: 32명

【전 직원이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 ▶ 우리 회사는 직원이 30명 남짓한 작은 회사입니다. 출근시간의 교통체증, 아이 유치원 보내느라 바쁜 아침은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9시 30분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6시로 유지해서 하루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이구요. 이제 근로자 개인별로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해보려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배경, 진행 방향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출퇴근 시간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특정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은 수준이다.

*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소 대상 조사(2015.12월, 고용노동부)

** (유연근로 확산의 어려움) 적합직무가 없어서(40.2%), 노무관리의 어려움(22.3%) 등

- 고용노동부는 일가양득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한다.
 - * (유연근로 지원)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 총 근로자의 5%이내, 최대 1년 (재택·원격근로 지원)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 총 근로자의 10%이내, 최대 1년
-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로 도입을 지원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 * (지원 대상)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 신청서는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일가양득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올해 300여 개소의 기업을 승인·지원한다.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10 여성가족부

“청년여성의 창업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청년여성 창업지원 협업 업무협약’ 체결 -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한국여성벤처협회·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키로

- 청년여성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광주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와 함께 4월 20일(수) 오전 11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여성 창업지원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청년고용절벽,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다방면으로 촉진하고, 여성친화적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협약체결 기관들은 앞으로 청년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추진, 창업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창업 관련 정책수립 추진 시 이번 협약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여자대학·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한 적극 홍보로 청년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는 개별 대학에서의 창업 지원 사업 확대 뿐 아니라 전국 단위 창업지원 사업과 행사에 각 대학 소속 청년여성들이 적극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학별 창업 대회 지원,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청년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청년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케어(돌봄) 프로그램 등 청년여성들이 창업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벤처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 및 가족친화적인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 한편, 이날 협약식장에는 **창업 희망 청년여성, 여성CEO** 등이 함께 자리해 창업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창업여풍 프로포즈**’ 행사도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 ‘**창업여풍 프로포즈**’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성의 사회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최하는 **네트워킹 및 멘토링의 자리**로, 앞으로는 직접 여대를 찾아 만남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시각과 아이디어가 **창업에 반영될 때**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민관협력 체계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여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행사 개요(안)
2. 업무협약서(안)

붙임1

협약식 행사 개요(안)

□ 행사명 : 청년여성 창업지원 협업 업무협약식

【여성가족부 -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 한국여성벤처협회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

□ 목 적 : 청년여성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 붐 조성 등에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

□ 일 시 : 2016. 4. 20.(수), 10:00 ~ 11:30

□ 장 소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참석자 : 80여명 내외

- 여성가족부 장관, 여대 총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세종자치특별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여성 CEO,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 및 일반여성 등

□ 세부일정

시 간 (분)	주요 내용
10:00~11:00 (60분)	▫ 창업여풍 프로포즈(토크 콘서트) - 인사말씀 : 세종자치특별시장 - 연사 :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11:00~11:30 (30분)	▫ 협약식 개최 ▫ 협약 추진배경 및 협약내용 보고 ▫ 참석자 인사말씀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청년여성 창업지원 협업 업무협약

여성가족부-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 한국여성벤처협회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가족부,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광주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벤처협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협약체결 기관)는 여대생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체결 기관이 청년여성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 붐 조성 등에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체결 기관은 협약 목적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협력하며,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 **여성가족부**는 창업 관련 정책수립 추진 시 동 협약 내용을 적극 반영 추진하며 특히, 여자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한 적극 홍보로 청년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는 개별 대학에서의 창업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협력체결기관의 창업 관련 행사와 사업에 각 대학교 소속 청년여성들이 적극 참여 하도록 하여 청년여성 창업 지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에 기여한다.

3.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창업케어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보육시설 운영 등 청년여성들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회원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산노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적극 동참한다.

4.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여풍 프로포즈, 창업경진대회,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청년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4조(협약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신의성실) 각 협약체결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각 협약체결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효력 만료일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16년 4월 20일



장관 강 은 희

센터장 최 길 성

회장 이 영



총장 이 선 재

총장 이 원 복

총장 김 낙 훈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전 혜 정

총장 심 화 진

총장 황 선 혜



총장 최 경 희

11

국토교통부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부적 지원

- 황 총리, 제2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첫 회의 개최
- 국토부·문체부·중기청·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행자부·고용부·여가부 등 9개 부처 협업, 신규 33곳 성공 위해 지원

□ 정부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산림·중기청 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1.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

- 먼저, 정부는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지난 한 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하여,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 이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희향만 등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개소)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하였고,

* (사례: 서울 노원·도봉구)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하여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新경제중심지 조성**

-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개소)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하며,

* (사례: 충북 충주) 충주관아골, 감영거리 등 **역사문화자산을 관광거점화**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지원하여 충주역 이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

-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개소)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사례: 부산 서구)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로서, 양호한 **조망권**을 살려 **행복주택, 공폐가 활용 미니주택** 등 조성

2.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

-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 또한,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고도화

- 9개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 (문체부)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 (중기청)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법무부)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 *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
- (농식품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해수부)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항만공사 협의 등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도심 연계계획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담당

-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 (고용부·여가부)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등을 추진한다.

※ (붙임)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요

2.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3.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

4. 도시재생사업 부처협업 지원방안

□ 위원회 개요

-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 구성 : 위원장 및 3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6명) :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민간위원(13명) : 구자훈, 김갑성, 김경수, 김영, 김향자, 김형균, 김혜천, 김호철, 박은실, 양병이, 윤현숙, 최윤기, 황희연

□ 위원회 기능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심의

- 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 ②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 ③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④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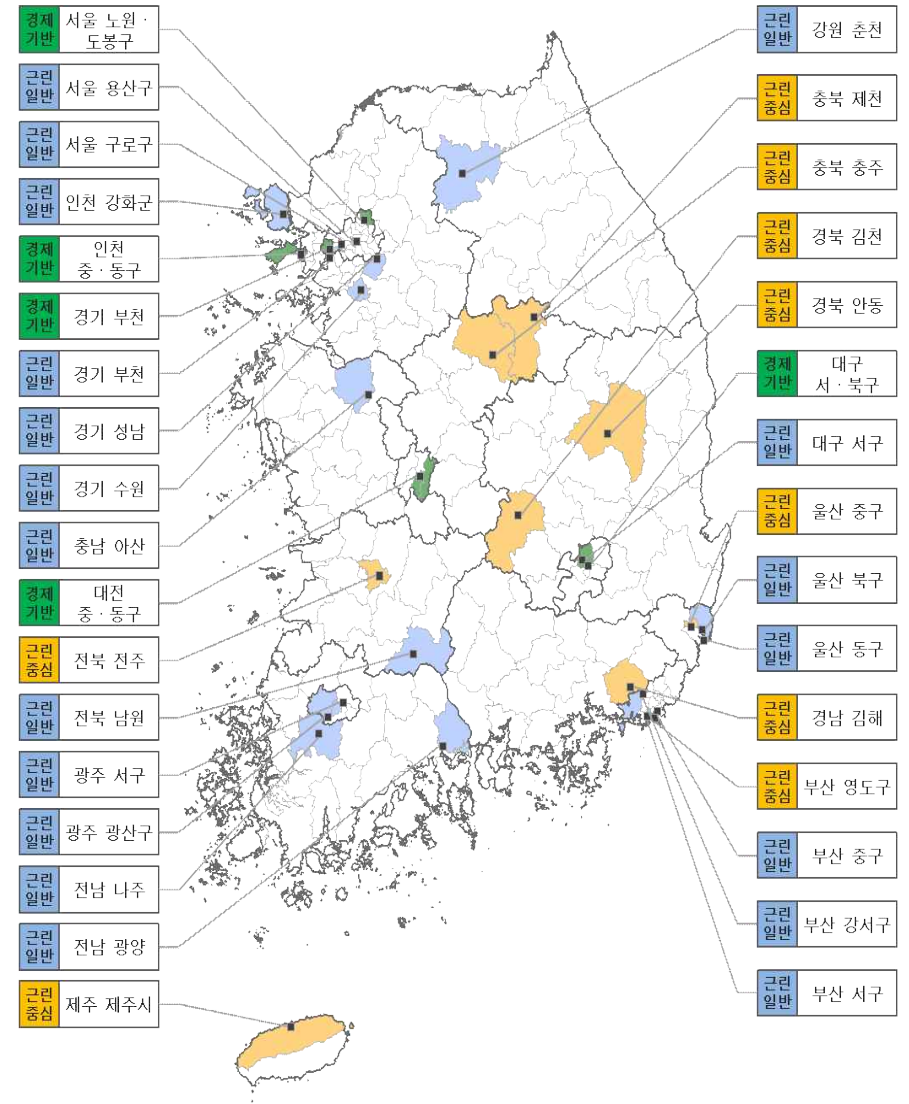
붙임2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지자체			사업구상(안)
경제기반형	서울	노원·도봉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대구	서·북구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인천	중·동구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대전	중·동구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중심지가치	경기	부천시(원미구)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부산	영도구	영도 대통전수방(大通傳授房) 프로젝트
	울산	중구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충북	충주시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都城)으로 도약
근린재생형	충북	제천시	응답하라 1975, 힐링재생 2020
	전북	전주시(완산구)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경북	김천시	자생(自生)과 상생(相生)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경북	안동시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일반	경남	김해시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제주	제주시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근린재생형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서울	구로구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부산	중구	보수 Plus: 책방골목과 언덕배기, 보수동 사람들
	부산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이·초창 도시재생프로젝트
일반	부산	강서구	낙동강과 김해평야의 관문 신장로 전원 교향곡
	대구	서구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뽕마을
	인천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바꾸기
	광주	서구	오감따라 천따라 마을따라,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근린재생형	광주	광산구	전통의 맛과 멋이 한마당 되는 활기찬 광주송정역세권 재생
	울산	동구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	북구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경기	수원(팔달구)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일반	경기	성남(수정구)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언덕 위 태평성대 도시재생사업
	경기	부천(소사구)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강원	춘천	호반도시 춘천, 소양 관광문화마을/열린장터 만들기 사업
	충남	아산	버려진 1만평, 살아나는 10만평
일반	전북	남원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애”
	전남	나주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전남	광양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를 광양
	전남	광양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를 광양

붙임3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



부처	협업 방안
문체부	[문화예술관광을 테마로 하는 도시재생] ·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과 연계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 · 관광 코스 및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중기청	[도심쇠퇴 상권활성화와 도시재생] · 전통시장 정비, 대학협력형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공동 대응
법무부	[범죄 등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을 함께 추진(5곳 내외)
농식품부	[도농복합 연계형 도시재생] · 도농복합시 읍지역 도시재생사업(광양, 아산) 협업관리 · 컨설팅 및 자문시 농식품부 전문인력 활용
해수부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 부산 북항, 인천 내항 등 유휴항만 재개발 및 재생사업 협업추진 ·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항만공사 협의 등을 담당 * 국토부는 도심 연계계획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담당
행자부	[쇠퇴도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
고용부 여가부	[근린 일자리 및 복지·돌봄서비스 창출] · 마을 단위 일자리 창출, 복지·돌봄서비스 및 여성친화적도시 등의 도시재생사업 적용방안 협업

1. 경제기반형

- ① (서울 노원·도봉구) 창동역 주변 체육시설, 철도차량기지 부지 등에 지식산업단지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 경제거점 조성
- ② (대구 서·북구) 핵심산업(섬유, 안경 등)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여 서북권 허브 형성
- ③ (인천 중·동구) 일반인에 개방되는 인천내항(1·8부두), 근대문화자산(차이나타운), 관광지(월미도) 등을 활용한 해양·문화산업거점 조성
- ④ (대전 중·동구)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창조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대전역세권에는 MICE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 거점 확보
- ⑤ (경기 부천시) 준공업지역의 4대 산업(금형·로봇·조명·패키징)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시기능 중심 허브 구축

2.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① (경북 안동시) 태사묘,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창조산업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②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과 한옥마을, 원도심 특화거리를 연계하여 전통문화거점기능 및 원도심 위상을 강화하고, 도심관광 활성화
- ③ (제주 제주시) 역사문화자산 복원(관덕정 광장 조성) 및 관광자원화(도심올레길 조성)를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 및 상권활성화 도모
- ④ (경남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보존과 병행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를 활용한 관광 기반(월드 누들 빌리지, 세계문화 야시장)을 조성
- ⑤ (충북 충주시) 구도심 유휴 시설(우체국 이전부지 등) 등에 청년창업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주목 관아골의 경관 정비
- ⑥ (부산 영도구) 두부공장·어묵공장(삼진어묵) 등 경쟁력있는 지역점포의 기술 전수·체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상권 회복
- ⑦ (충북 제천시) 업종전환을 통해 저층형 노선상가를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대학생 행복주택 등 건립

- ⑧ (울산 중구)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장기방치건축물 등에 문화산업(창작멀티플렉스) 기능을 도입하여, 원도심내 새로운 창의인력 유입
- ⑨ (경북 김천시) KT&G 폐창고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평화시장 빈점포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 거점 조성

3. 일반 근린재생형

- ① (부산 서구) 피난민 정착촌(비석마을)으로 형성된 경사지 마을을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린경제 활성화
- ②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배후주거지로서 공동체 주택 등을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중국동포가 어우러지는 통합 거점 조성
- ③ (경기 성남시) 대학생 등을 위한 주택공급 및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거주환경 개선
- ④ (경기 부천시) 뉴타운 해제과정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이벤트 개최, 골목길 명소화 사업 추진
- ⑤ (대구 서구) 원고개시장의 스토리,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지역일자리 창출
- ⑥ (광주 서구) 양동시장 현대화와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거주환경 개선
- ⑦ (광주 광산구) 교통의 허브인 KTX 송정역 앞 음식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등을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형 상권으로 특화
- ⑧ (강원 춘천시) 번개시장과 소양강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여행 등의 녹색관광거점으로 육성
- ⑨ (부산 강서구) 낙동강 생태공원의 자연자산과 주산품(토마토) 기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원 주거환경 조성
- ⑩ (부산 중구) 보수동 고지대마을의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을 개선하고, 헌책방 골목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및 소규모 일자리 창출
- ⑪ (울산 북구) 염포 등 역사자산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하여 노·사·민 협력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⑫ (서울 용산구) 강남권으로부터 양호한 접근성과 남산 자연자산, 해방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녹

색문화마을 조성

- ⑬ (충남 아산시) 장항선 모산역 이전부지에 어린이 체험문화 시설 등 조성을 통해 주변 신도시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요 충족
- ⑭ (인천 강화군) 고려시대 역사적 유·무형 자산(왕의 길)을 활용하여 테마가로·시장 등을 개선하고, 관광 명소화 추진
- ⑮ (경기 수원시) 화성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성곽도시의 특성을 살린 재생사업 시행
- ⑯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루트를 정비하고, 전통문화, 예술 공간 등 조성
- ⑰ (전남 나주시) 나주읍성을 복원하고 한옥 등을 정비하여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하고, 역사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 ⑱ (전남 광양시) 광양읍성 복원 및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전통적인 경관을 구축하고, 빈 공터 등에 도시 숲 등 조성
- ⑲ (울산 동구) 방어진항과 대왕암 등 관광거점을 정비하고, 음식점 등 상가를 특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해수부, 제3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

- 2016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4월 20일(수)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물 수출업계,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1사분기 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429백만불) 대비 약 1.5% 증가한 435백만불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기반으로 향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에서 '2016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을 보고하고, 수출지원기관에서는 1사분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수출업계에서는 품목별 수출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은 ▲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중국·미국 시장 진출 확대, ▲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수출 증대, ▲ 수산기업 역량 강화, 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참치, 김, 굴, 넙치, 전복, 어묵 등을 대표하는 수출업계와 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는 주요 수출 품목별로 수출현황과 전망 등을 발표하며, 수출 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정례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의 수출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